

문화공간이름, 글로벌 협력 행보 주목

라오스 대표 민간예술극장 '카오니우 라오 극장'과 국제예술교류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민간 소극장 문화공간 이름(대표 이윤정)이 라오스의 대표 민간극장인 '카오니우 라오 극장(Khao Niew Lao Theater)'과 손잡고 국제예술교류에 나선다. 협약식은 지난 9월 24일 'ERUM Global Stage Series: Beyond Borders'라는 타이틀 아래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예술가 교류와 공동 공연 기획을 비롯해 장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는 전주와 라오스를 오가며 양측 예술가들의 교차 공연이 본격화되고, 2026년에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준비한 국제 무대가 두 나라에서 동시에 펼쳐질 예정이다. 문화공간 이름은 내년 라오스 국제예술페스티벌에 초청을 받았으며, 카오니우 극단이 준비 중인 2027년 영국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도 협력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 문화공간 이름은 그동안 클래식, 무용, 문학, 월드뮤직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실험적 기획으로 주목받아왔다. 특히 "장르·공간·시간·국경의 경계를 넘는 공연예술"을 모토로 한 '너머의 예술 - 이름 프로젝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지역 공연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다. 협약은 단순히 공연을 초청하거나 유치하는 수준을 넘어, 공연장과 공연장이 전략적으로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민간 소공연장 '문화공간 이름'이 지난 24일, 라오스의 대표적인 민간예술극장인 '카오니우 라오 극장(Khao Niew Lao Theater)'과 국제예술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력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문화공간 이름은 올해 초부터 세계 각국의 공연장과 꾸준히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왔고, 라오스 카오니우 라오 극장과 교류가 가장 깊은 결실로 이어졌다. 협약식은 지난 24일 전주 무대에서 열린 아시아 실험예술 공연 '체오봉(CHEOBONG)' 공연 직전에 진행돼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윤정 대표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 교류와 공동기획의 출발점"이라며, "2026년 'Global Stage Series'의 본격적인 론칭을 통해 더 많은 국가들과 예술적 연결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공간 이름은 이제 단순한 지역 소극장이 아니라, 전주를 세계 예술무대와 잇는 문화 교류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협력이 전주의 문화적 위상에도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토요일기획공연 '판'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예원당에서 2025 하반기 토요일기획공연 '판'을 개최한다. '국화향 가득한 오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을 비롯해 전문예술단체와 대학이 참여해 국악의 전통적 아름다움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가을 무대를 마련한다. 10월 18일 무대에는 퓨전 국악 그룹 'Play 가온'이 창작 음악극 '심봉사의 눈으로 본 심청'을 펼치며, 25일에는 '충주시립무용국악단'이 우륵의 예술정신을 계승한 '국악관현악'으로 장대한 선율과 웅장한 감동을 전한다. 11월 1일에는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이 기획공연 무색(無色)으로 무용·기악·성악이 어우러지는 전통예술의 깊이를 보여주고, 8일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뉴비스테이지'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연희과가 무대에 오른다. 이어 15일에는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와 한양대학교 국악과 해금양상별 '해일락'의 합동 무대가 펼쳐지며, 마지막 22일에는 월드뮤직 밴드 '두번째달'이 말한다. 세계 민속음악을 독창적으로 풀어내는 '에스니 퓨전' 사운드로 국악의 외연을 확장하며, 가을 공연의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웹툰 '향단련' 시즌2 연재

오늘부터 카카오페이 웹툰 통해 연재 시작

남원시 웹툰 '향단련'이 10월 1일부터 카카오페이 웹툰을 통해 시즌2 연재를 시작한다. 남원시가 리아제이와 함께 제작한 '향단련'은 춘향전 속 조연 '향단'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참신한 발상과, 현대 인물이 고전 속 인물로 들어가는 독특한 설정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로맨스와 코미디, 그리고 전통이 어우러진 전개는 젊은 세대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고, 카카오페이 웹툰 평점 9.9점이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향단련'의 성과는 단순한 콘텐츠의 흥행을 넘어선다. 춘향전·흥부전 등 고전문화와 판소리라는 K컬처(소리·스토리)의 원류를 품은 남원에서 제작된 '향단련'은,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K-웹툰으로 재탄생하여 지역이 꿈꿔오던 K컬처의 뿌리이자 출발점임을 입증했으며, 수익 일부를 남원지역 청소년 장학사업에 환원하고 있다. 특히 시즌2는 더욱 풍부한 서사와 새로운 캐릭터들을 통해 세계관을 확장, 드라마 제작사



들의 영상화 협업 제안이 이어지는 등, '향단련'은 웹툰을 넘어 드라마·공연·관광 프로그램으로 확장 가능한 글로벌 멀티 IP로 주목받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1부 '강패와 장구' (30)

글면, 집으로 와.

- 오상근 -

그러나 동식은 불만이다. 박창수는 동식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하이에나 같은 짐승으로 취급하고 있다. 동식에게 박 앞에서 엎드려 자신의 신발을 허로 깔으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혐오스러운 불쾌감이, 동식의 마음속을 끓여냈다. 둔봉투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막말로 사람을 죽이면 댁이나 나나 공범이 될 텐데, 공범끼리 이유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요? 내가 무슨 소나 돼지를 잡는 백정이요? 사람을 죽이려면 죽이는 망나니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요?" "....." 박창수는 숨을 길게 들이마신 뒤 내뱉었다. "이유를 말하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나 말도도 누구에게 일을 시켜도 마찬가지 일 거요!"

동식은 자신 쪽으로 건너온 대봉투를 박 쪽으로 밀어놓고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이유를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다는 말을 하려다가 꼭 눌러 참았다. 마지막 자존심을 살리고 싶어서였는지 모른다. 가을 찬바람이 동식의 이마를 때렸다. 동식은 자신의 차 아우디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후진해서 차를 빼 마을에서 나왔다. 돌아오면서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점수를 매겨보려 했지만 어느 쪽에 점수를 더 줘야 할 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다음 날은 봉사활동을 마치고 동식은 무장면으로 향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다. 고창초등학교에서 봤던 '무장읍성놀이마당농악단'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늙수그레한 남자 둘이 앉아서 장기를 두고 있었다. 동식이 안으로 들어가자 동식을 발견한 중노인이 졸을 앞으로 밀려다 멈추고 굳은 눈으로 동식을 바라봤다. 농악단 사무실은 건달이 찾아올 곳이 못 되는 모양이다.

"무슨 일로다가.....?" "말씀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동식은 최대한 웃는 얼굴을 하려고 애썼다. 두 중노인은 동작을 멈추고 시선을 동식에게로 모았다. "여기 혹시 강정근 씨라고.....?" 중노인 둘은 경직된 눈들을 풀지 않았다.

"근다..... 무슨 일로....." 졸을 잡고 있던 중노인이 여전히 경계하는 눈으로 물었다. 동식은 몸 안에 있는 부드러움과 웃음을 있는 대로 다 끌어다가 얼굴에 담고 공손하고 다소곳하게 강정근 그분에게 동식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물어보려고 찾았다는 말을 했다. 늙수그레한 남자 둘은 동식의 말을 듣고 서로를 쳐다봤는데 강정근의 주소지나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는 것인지를 눈짓으로 교환하는 듯 보였다. "저 월립 봉림마을 사는데. 거 봉림마을 회관에서 물어보면 알 텐디." 등을 보이고 있던 중노인이 말했다. "전화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전화번호? 가만히 있어보자." 졸을 잡고 있던 중노인이 책상 서랍에서 장부를 꺼내 뒤적거리더니 번호를 불러줬다. 동식은 두 중노인에게 고개를 숙여 고맙다는 말을 하고는 알려진 번호로 전화를 넣었다. 동식은 지난번 농악경연대회에서 만났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강정근에게 소개했다. "누구라고?" 기계음에 섞인 강정근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소름 때문에 동식의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한 모양이다. 동식은 다시 큰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고, 만나서 물어볼 말이 있다고 말했다. "아하, 그 사람....., 지금 내가 눈에 나와 있네. 저녁에 집에 들어갈거여. 글면, 집으로 와."

강정근도 동식을 기억한 모양이다. 왜 당신이 나를 만나자고 하느냐, 무엇을 물어보려 하느냐, 따져야 하는데 그는 그런 말을 모두 생략했고 대신 동식을 집으로 오라고 했다. 그도 동식에게 뭔가를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었던가.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사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더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